

# “2000년 이전 전주 장소성 담긴 기록물 찾아요”

### 전주시, 3월 6일~5월 31일 '제1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담긴 기록물을 모아 전주만의 고유한 역사로 남기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 그곳'을 주제로 '제1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2000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중 전주의 장소성이 담긴 기록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억의 다방 홍보용 성냥 △가립출판사 등 전성기 서점 △동네와 함께 한 뽕집 등 과거 시민 일상 속의 공간 관련 자료도 귀중한 기록물이다. 또한 △전라선 등 교통수단 △현재를 추억이 된 철길, 육교, 배차장 관련 자료 △미원탑, 기념비, 인구탑 등 전주의 랜드마크였던 장소의 추억이

담긴 사진류, 문서류, 기념품 등 기타 박물관 △해당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생산된 박물관 등이 수집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주의 장소 관련 자료 외에도 전주와 관련된 시대성과 역사적 의미가 담긴 근현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일반 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록물과 함께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 063-281-293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자료를 기증(기타)한

시민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이 주어지며, 민간기록물 기증(기타) 증서도 수여된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12회에 걸친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총 5300여 점의 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주의 마을'을 주제로 홍수로 인한 마을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마을의 기록 사진 140 여장을 비롯한 580여 점의 민간기록물이 수집됐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기 쉬운 민간이 소장한 전주의 역사를 수집,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시민기록관을 통해 시민의 삶 속 전주의 흔적을



제1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포스터

전주의 자선으로 보존하며 기록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 도서관 여행 떠나자

### 3월 9일~11월 30일 7가지 다양한 여행코스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용 버스에 탑승해 도서관 여행해설사와 함께 전주의 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매주 토요일 하루코스(1회)와 반일코스(2회) 등 매주 3차례로 나누어 신설코스를 포함한 총 7가지의 다양한 여행코스를 즐길 수 있다.

먼저 '하루코스'는 매일 1·3·5주의 책문화 코스와 2·4주의 예술문화 코스로 운영된다.

책문화 코스는 전주의 책문화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도서관을 여행하며 기록 문화의 뿌리인 전주 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다가여행자도서관 △한옥마을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전주전년한지관을 방문하게 된다.

또한 4개 주제별 체험을 결합한 '반일코스'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운영되며, △이야기코스 △그림책코스 △비밀코스 △정원코스 등 4개 코스가 운영된다.

'이야기코스'(1·3·5주 오전)는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떠날 수 있는 코스로, △추억과 가치를 지닌 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 △말갓 숲 놀이터가 위치한 덕진공원 내 '연화정 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이 진



행되는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림책코스'(1·3·5주 오후)는 △여행자를 맞이하는 예술센터 '차마길여행자도서관' △여행의 모든 것을 담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을 진행한다.

'매일 들뜬 주와 넷째 주 오전에 진행되는 '비밀코스'는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이 있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어린이 창작기지(모아)와 청소년창작기지를 만날 수 있는 '전주혁신도시북합문화센터'가 방문지이다.

'정원코스'(2·4주 오후)의 경우 △예술정원이 아름다운 '서학예술마을도서관' △학산과 만내계 풍경을 담은 '학산숲속시립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한 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인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반려식물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일 1일에 다음 달 도서관 여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과 타지역 도서관 여행자들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서신동 중흥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놀이·체험 활동·독서지도 등 방과 후 돌봄 걱정 해소 기대



전주시는 26일 서신동 인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해소를 위한 '중흥 다함께돌봄센터'의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줄 전주지역 17번째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6일 서신동 인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해소를 위한 '중흥 다함께돌봄센터'의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전주시의회 의원, 수탁법인 관계자,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중흥 다함께돌봄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중흥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완산

구 새터로 74)에 마련된 중흥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센터장과 돌봄 교사 등 2~3명이 근무하면서

독서지도와 놀이 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6곳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왔으며, 17번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흥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80.05㎡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프로그램실과 공부방, 사무실, 주방 등의 공간을 조성했다.

김용삼 복지환경국장은 "중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기울"이라며 "전주지역 모든 아동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문화·체육시설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가 26일 덕진구 화전동 '만경강 나비·파크골프장'과 완산구 문화공관장 '작당'을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나비·파크골프장 등의 운영 상황 및 계획, 개선 사항 청취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가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

부지를 찾아 진행 상황, 지원 및 협조 사안 등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남부시장 옛 원예공관장에 조성해 운영을 앞둔 문화공관장 '작당' 현장도 찾아 문화교육장, 모두의 정원 등 다목적 공간, 야외공간, 전시·행사 공간을 둘러보고 각종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영진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 환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6일 덕진구 화전동 '만경강 나비·파크골프장'과 완산구 문화공관장 '작당'을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 활동을 꾸준히 펼쳐 신뢰받는 문화경제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주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가동을 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사업장

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업체의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총 1억 482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대기배출사업장(4·5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봉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